

* 축산뉴스 (소) *

‡ 검역원, 미국산 쇠고기 관능검사 대폭강화

정부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아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기준 및 세부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5일 발표했다. 우선 개봉·절단·해동 등의 관능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목 및 신규 작업장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부산물은 추가적으로 모든 정밀검사 해당 물량을 포함하게 된다. 정부가 밝힌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봉검사의 경우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되도 절단검사는 수입시고별/컨테이너별 3개 부위를 실시한다. 또 해동검사는 모든 품목에서 관능 검사 이상의 경우 실시한다. 특히 신규 승인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반드시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포장상자에 월령표시가 없을 경우 전량 불합격조치가 취해진다. 단 일부 월령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물량만 불합격 조치한다. 또한 일부 품목기재가 잘못된 경우나 관능검사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물량 전체를 검사해 해당물량에 한해 불합격 조치한다. 특히 SRM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을 불합격 조치하고 문제 작업장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 쇠고기이력추적제 및 DNA시료채취

동시 가능 귀표 개발

쇠고기이력추적제용 귀표에 전자테크 및 DNA 시료채취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기능 국산 귀표가 개발됐다. 한국축산전자 기술연구회(회장 성광모)는 지난 4월 18일 “소 및 양돈용 등 다양한 귀표를 개발해 농축협 및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 이어텍(대표 성기호)이 최근 기존의 귀표(쇠고기이력추적제용) 기능과 전자칩(RF-ID)기능, DNA시료채취 동시에 할 수 있는 종합기능 귀표를 개발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어 “새롭게

개발된 귀표는 한우협회 등이 요구하는 생산단계의 DNA시료채취의 난제가 해결되고 축산농가에서는 자동사료급여, 자동착유기 등의 시설을 저렴한 설치비로 시설할 수 있다”며 “특히 브루셀라 체혈 및 각종 전염병 역학조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네티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무차별적 공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정부에 이어 이제 수입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성명서로 주요 업체들의 사명이 공개되며 일부 네티즌들이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저질쇠고기 수입업체’·‘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지금은 이들 업체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댓글과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해당업체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안전성의 기준이 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문제를 업체들의 양심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 특히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재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업자가 안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발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빠른 속도로 수입업체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 있는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역 추적해 유통경로를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검역원 발표 수입검역실적자료도 함께 첨부되며 전체적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성명서가 이런식으로 문제가 불거질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써는 상황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